제24-199호



더불어 함께 신나는 배움이 있는 새연 꿈자람터

통 정 가

담당: 보건

대상: 전교생

안내: e알리미 게시

11월 보건소식 안내

11월 11일은 눈의 날

11월 11일은 '눈의 날'입니다.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으로 눈의 건강을 지키고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▶ 건강한 눈을 위한 수칙

- 안과에서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는 1년에 1번은 꼭 하도록 합시다.
- 컴퓨터, TV 시청은 밝은 곳에서, 독서할 때 바른 자세로 최소 30㎝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
- 눈이 피곤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감고 쉬는 것입니다.
-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를 주의합니다.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(청색광)는 눈을 피곤하게 하고 안구건조증을 발생시켜 눈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또한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눈의 제일 바깥에 있는 각막을 통과할 때 블루라이트를 햇빛으로 인식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생체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기도 하여 삶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▶ 자녀가 이럴 때 안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- 1. 눈을 찡그리며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박거린다.
- 2. TV를 가까이서 본다.
- 3.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한다.
- 4. 눈물을 자주 흘리거나 빛에 민감하다.

▶ 눈의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지압과 스트레칭

- 1. 눈 주변의 관자놀이 부분을 엄지로 눌러 지압과 함께 안구운동을 해줍니다.
- 2. 30초가량 양손바닥을 비벼 마찰열이 나게 한 후 눈 위에 대고 가볍게 문질러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.



좋은 건강습관은 평생 건강의 밑거름

큰 일교차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, 겉옷이나 목수건으로 체온 유지하기 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더불어 자주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좋지 않아 호흡기 질환 및 결막염 등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손 씻기와 식후 양치질하기,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로 기본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





- 외출에서 돌아오면 얼굴,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손 등 피부를 깨끗이 씻고 양치질하기
 - 실외활동을 피하기
 - 감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





- 지외선 지수가 높은 시간에는 모자와 선크림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기
- 더러운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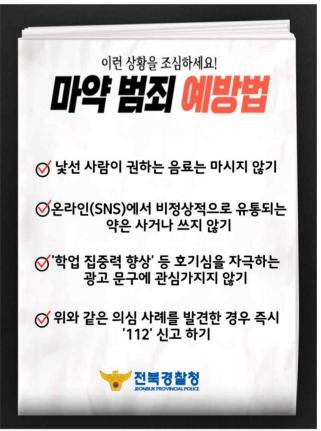
-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밥 꼭 먹기
-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기
-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것이 제일 중요



최고의 마음 주치의는 부모입니다.

- **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** 하루동안 지낸 일을 서로 나누며 잘 들어줍니다.
- 온가족이 함께 가사일이나 요리 등을 함께 하며 가족간의 협력을 배웁니다.
- **부모가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.**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. 화, 분노, 슬픔 등의 감정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경험으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- **자녀 교우관계에 관심을 가집니다.** 아이들은 친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고 들어봅니다.
- **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듣습니다.**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았는지보다 무엇을 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는지 마음 상태를 알아보세요.

마약 범죄 예방법



※ 11월 보건소식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4. 11. 1.

전주새연초등학교장